

카톨릭교회와 환경문제

이재돈 / 천주교 하늘·땅·물·벗모임 대표,
신정동 성당 신부

환경파괴는 현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난제이다. 카톨릭 교회 역시 이 문제에서 제외되지 않기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환경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카톨릭 교회에서 환경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글은 1990년 1월 1일 세계 평화의 날에 발표된 교황요한바오로2세의 담화문 [창조주 하느님과 함께 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는 평화]이다. 이 문헌은 환경문제만을 다룬 교황의 첫번째 문헌으로 환경문제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절박한 어조로 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이 문헌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생태계의 위기, 오존층의 파괴, 온실 효과에 의한 지구의 기온 상승, 폐기물 문제 등 현대의 환경 파괴문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라고 교회는 파악하고 있다. 하늘과 땅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조화와 질서라는 하느님의 완전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중에서 인간은 하느님을 대신하여 다른 피조물을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완성 시켜야 할 책임을 맡은 존재였다. 그러나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거역함으로써 피조계의 평화를 깨뜨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대의 환경파괴는 근원적으로 인간의 오만과 이기심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만은 하느님을 거스르고 하느님 위에 군림하는 태도이며, 이기심은 이웃을 돌보지 않고 나만을 취하고자 하는 태도이며, 탐욕은 물질적인 욕심을 한없이 채우려는 마음이다. 인간의 오만과 이기심과 탐욕 때

문에 하느님과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다.

그리고 인간의 오만과 이기심과 탐욕이 근대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발달한 과학과 기계기술을 만나면서 환경파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과학과 기계기술을 잘못 이용하는 인간은 하느님의 영역인 생명까지를 조작 하려는 바벨탑을 쌓고 있다. 나만 혹은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은 과학과 기계기술에 의해 가능해진 잉여가치를 독점하여 사회적내지 국제적으로 빈부의 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과학과 기계기술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원하는 것들을 원하는 만큼 착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환경파괴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상호의존심이 새롭게 인식될 때 현재와 같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로 이어지는 물질주의적 생활방식은 변하게 된다. 물질은 풍요롭게가 아니라 '물질은 필요한 만큼'으로 자목하게 되며 그 대신 정신은 풍요롭게 누리는 생활을 추구하게 된다. 이때 자연파괴를 중지시키고 자연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을 깨닫도록 교육이 어릴때 부터 실시되어야 한다.

때문에 환경파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근원적으로 인간의 오만, 이기심, 탐욕이라는 병부터 우선 고쳐야 한다. 이때 하느님의 창조 질서 즉 인간과 자연의 상호 의존성이 보전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환경파괴가 워낙 지구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에 환경 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전체적 차원에서 전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협력도 절실히 요청된다. 그러기 위해 민족주의, 경제적 이기주의등을 극복하여야 한다.

특별히 후진국과 선진국간에 도덕적이며 상호보완적인 연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후진국의 빈곤을 방지한 채 환경보전이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여러가지 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후진국 역시 나름대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핵전쟁을 비롯한 화학전, 세균전, 생물전 등을 금지해야 한다.

환경파괴의 위기는 민족과 종교를 초월하여 온 인류가 평등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협력을 전개해야 한다. 여기에 신앙인들은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그 선두에 서야 한다. 이를 위해 신앙인들은 이웃사랑이 곧 하느님 사랑이듯이 자연사랑이 곧 하느님 사랑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교황의 문헌은 카톨릭 환경운동의 이정표가 되었으며 이후 한국 카톨릭교회에서도 본격적인 환경보전운동이 전개되었다.

현재 한국 카톨릭교회에서는 여러 차원에서 환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기에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다. 여기서는 단지 본인이 함께 하고 있는 천주교 환경보전운동 모임인 하늘·땅·물·벗모임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천주교 환경학교 (1993. 3월 현재)

- 취 지: 환경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신앙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자각시키기 위함
- 교육기간: 8주(1주일에 1회씩, 1회 2시간 30분)
- 교육내용: 생태계, 대기오염, 수질오염, 식품오염, 폐기물, 자연보전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자연보전과 동양의 지혜, 자연보전과 신앙인의 자세

2) 월례강좌

환경학교 수료자들과 관심자들을 대상으로 환경학교에서 다루지 못한 주제나 시기에 따른 주제를 갖고 재교육 및 연대의 기회로 삼음. (월 1회 모임)

3) 어린이 청소년 자연학교

- 취 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자 함

4) 주일학교 환경 포스터 그리기 대회

매년 4월 서울대학교구내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포스터를 그리게 한 후 6월 초에 있는 「푸르름을 만드는 잔치」중에 시상함.

5) 환경보전 실천 캠페인

서울대학교구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사순절과 대림절을 기하여 환경보전 실천지침 한가지씩을 제시하여 줌.

6) 푸르름을 만드는 잔치

매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기하여 교회내 모든 환경단체들이 참가하여 벌이는 환경잔치, 환경포스터의 환경상 시상, 심포지움, 전시회, 연극공연, 비디오 상영, 무공해 농산물 및 공산품 판매, 노래 마당, 먹거리 마당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7) 회보 및 교육 책자 발간

회원들을 재교육시키고 연대시키기 위하여 월1회 회보를 발간하여, 재교육용 책자 ‘하늘·땅·물·벗’ 작은 책 시리즈를 발간한다.

8) 도농 직거래 실시

도시와 농촌간에 유기 농산물을 직거래함으로써 농촌도 살리고 도시도 살리자는 운동

9) 다른 환경 단체들과의 연대

쓰레기 줄이기 운동, 한강살리기 운동 등을 위하여 다른 환경단체와 협력함.